

광주시, 주택시장 안정·원활한 거래 위해 힘 모은다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정책간담회…불법거래 등 공동대처
이 시장 “투기우려 없는 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

광주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협회와 힘을 모은다. 시는 또 정부를 상대로 투기 우려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동별 ‘핀셋 지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등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협회는 이날 광주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거래 원활화를 위해 ‘부동산 민관 협의체’를 정례적(분기 1회 개최)으로 개최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협회는 또 중개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 중개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제한 문제와 함께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날 광주시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핀셋 지정과 외지인 투기세력 강력 단속 등에 대해서도 강력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정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선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유지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아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를

대한 시도의 의견 청취 절차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에도 광주시에선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투기 우려가 큰 남구와 광산구에 대해서만 지정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5개 구 전체를 지정했다”고 그동안의 지정경위로 적극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면서 “동별 핀셋 지정과 지정관련 일부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대 광역시 전체(부산 중구만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광주시는 지난 6월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해제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LH송화마을8단지, 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부 장관상

최근 페트병 분리배출 우수단지로 선정된 광주 LH송화마을8단지(관리소장 고미란) 입주민들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명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앞장

광주시 ‘임신부 직장맘 mam편한 패키지’ 지원사업 호응

임신부들이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신부 직장맘 mam편한 패키지’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5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mam편한 광주만들기’ 사업으로 임신부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임신부 전용 mam편한 의자를 무료 대여하고, 전자파 방지를 위한 담요·임산부 배려패드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장생활 꾸러

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부성 노무컨설팅 등 3개 분야를 종합 지원한다.

임신부 전용 의자는 임신기간 무료로 대여하며 기존 업무용 의자보다 의자폭이 넓고 등받이가 180도까지 기울어져 편리하다. 또 침대형 틸트시 스템이 적용돼 점심시간 등에는 간이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직장생활꾸러미는 임신부 직장맘의 고민을 세밀하게 분석해 전자파 차단 담요, 스트레스 완화 손인

형, 임신부 사무실 보호패드 등을 제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무사의 전문적인 모·부성 노동컨설팅은 공인 노무사의 임신부 단축시간 근무, 출산휴가 사용법,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등을 제공한다. 현재 20개 기업의 임신부 21명이 이용하고 있다.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순 지원하며, 시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신육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은 “임신부 직장맘의 만족감이 높고 회사 분위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공익신고제 강화

광주시, 시설 2173곳에 신고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위를 막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6일부터 지역 사회복지시설 2173곳에 신고 홍보 포스터 4000부를 제작·배포하고, 포상금 지급은 물론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신고 유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및 횡령, 폐이백, 회계부정 등 각종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바로응답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등록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인적사항 비공개, 신분상·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금지, 위법행위 책임강경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며,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광주시로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는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 필요시 특검감사 실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근절하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청렴광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더위 쉼터·재난 도우미 가동…폭염 대책 추진

광주시가 정체한 고기압이 더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 등에 따른 극심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동 행복복지센터 등 1500여곳에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냉방비 3억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 2240여명은 자치구와 협조해 전화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행동,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한다. 시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 도로변에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28곳을 추가해 모두 424곳을 운영한다. 다중 밀집 지역 주변 도

로에서는 살수차 28대가 50개 노선을 돌며 물을 뿌리고 폭염이 심해지면 군, 소방서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건설·산업 사업장 등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고 119 폭염 구급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항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폭염 환자 대부분은 실외 작업장, 길가, 논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노약자나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12명 공개모집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온라인 자치경찰 홍보와 시책 발굴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11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서포터즈는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광주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광주에 주소를 둔 청년층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26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서포터즈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자치경찰

제 안내와 시책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계 온라인 홍보 활동, 창작 콘텐츠 제작, 생활안전·교통치안 등의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맡는다.

3개월의 활동기간이 끝나면 자치경찰위원장 명의의 활동 수료증이 수여된다.

양우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치안 수요자의 시선에서의 시책 요구사항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며 “이번 서포터즈 모집에 청년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